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논의와 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지속가능성장을 '수익성을 수반한 수입보험료 성장'으로 정의하고, 기존에 잘 알려진 핵심사업 강화전략, 관련다각화전략, 고객중심 성장전략, 네트워킹전략, 인수합병전략 등의 성장전략을 지속가능성장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성장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계 및 실무에서 지속가능성장률 측정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Higgins(1977, 1981)의 모형을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여 지속가능성장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에 걸쳐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실제성장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과소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중소형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실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가능성장률보다도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회사가 많은 과대성장의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형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성장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실제성장률과 지속가능성장률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성장률이 지속가능성장률 보다 낮고 실제성장률과 지속가능성장률의 차이가 작은 경우가 성장률과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성장률과 지속가능성장률의 차이가 작은 수준을 적정성장률로 정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소성장의 문제에 노출된 회사는 지속가능성장률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과대성장의 문제에 노출된 회사는 지속가능성장률 수준으로 목표성장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구조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가를 분석하였고, 보다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적정성장 회사, 과대성장 회사, 과소성장 회사의 특성차이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변수로서 기업규모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영업활동을 반영하는 변수들 중에서는 사망보험비중이 음(−)의 영향을, 일시납보험비중이 양(+)의 영향을, 실효해약률이 양(+)의 영향을, 그리고 단체보험비중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성장 그룹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과대성장 회사는 적정성장회사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단체보험비중이 낮은 반면 일시납보험비중이 높으며, 실효해약률이 높고, 현금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성장그룹으로 분류된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험영업활동을 반영하는 변수 중 유일하게 사망보험비중의 회귀계수가 (−)의 값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영업활동을 반영하는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에 대한 관점 및 목표의 재정립, 지속가능성장 목표의 계량화, 그리고 수익성 및 성장성을 위한 영업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정리하였다. 우선,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을 단순히 수입보험료의 증가를 통한 시장점유율의 확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성장,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성장, 그리고 조직구성원을 위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의 관점과 목표를 재정립하여 이를 실천할 때 지속가능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는 구체적인 목표수익률과 목표성장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장률을 이용하여 적정성장률을 산출하고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목표성장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를 과대성장회사, 적정성장회사, 과소성장회사로 분류하고 이들 그룹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과대성장회사와 과소성장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다방면의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성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 즉, 경영진이 성장성과 수

익성 모두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는 전문 경영인의 리더십(leadership)에 의해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일 것이다. 최고 경영자가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 성장에 집착하면 중역에서 하부 직원에 이르기까지 단기적인 성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진이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은 기존의 성장전략을 지속가능성장 측면에서 재점검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률을 측정하여 실제성장률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진단함으로써 바람직한 성장전략 수립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개별 생명보험회사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장성 및 수익성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장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선,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해 Higgins의 모형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생명보험회사는 매출과 동시에 책임준비금전입액이 발생하고 이러한 전입액이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보된 자금 전액을 매출증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률 측정을 위한 모형에는 책임준비금전입액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획득할 수 없고 모형의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정을 추가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장률 도출에 있어 책임준비금전입액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적정성장 회사와 과소성장 회사의 특성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

전에 선택된 변수들이 풍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그룹의 차이를 온전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으로 판매채널, 가격책정, 상품개발능력 등을 반영하는 변수도 모색하였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변수 생성이 어려워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